

최근 유리피판술의 발달로 뼈와 연부조직을 동시에 이식하여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교실에서는 최근 mouth floor cancer로 composite resection을 시행한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fibula와 scapula를 이용한 osteocutaneous free flap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사례와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11 —

### Adenoid Cystic Carcinoma of the Salivary gland

전주예수병원 외과, 해부병리과  
박성길 · 이해경\* · 이삼열  
오성수 · 박윤규

저자들은 1971년 부터 1990년 까지 만 20년간 예수병원 외과에서 치료받은 악성 타액선 종양 환자 142명중 악성 선상 낭종 환자 64명을 중심으로 임상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악성 선상 낭종 환자 64명중 소타액선에서의 발생이 38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 타액선중에서는 이하선 발생이 15명(23.4%)이었다.

2) 악성 선상 낭종의 호발 연령은 50대에서 19명(29.6%)으로 가장 높았으며 악성 선상 낭종을 제외한 나머지 악성 타액선 종양에서는 60대에서 28명(35.9%)으로 가장 높았다.

3) 악성 선상 낭종 환자의 주증상은 소타액선의 경우 기능적 장애가 많은 반면 주타액선의 경우에는 종괴였다.

4) 악성 선상 낭종 환자의 증상 기간은 소타액선에서 발생한 경우 21명(55.2%)에서 1년 미만인 반면, 주타액선의 경우 17명(65.3%)에서 1년 이상이었다.

5) 64명의 악성 선상 낭종에서의 조직학적 등급(Grade\*)은 Grade I이 15명, Grade II 17명, Grade III 5명이었으며 등급 분류가 불확실했던 경우가 27명이었다>(\* Ref; Cancer 54 : 1062-1069, 1984)

6) 조직학적 등급 분류가 가능했던 37명의 악성

선상 낭종 환자에서의 임파절 전이율은 Grade I에서 0%, Grade II 5.9%, Grade III 20%이었다.

7)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악성 선상 낭종의 신경 침범율은 Grade I에서 20%, Grade II 64.7%, Grade III 100%이었다.

8) 악성 선상 낭종의 국소 재발율은 Grade I에서 26.7%, Grade II 47.1%, Grade III 60%이었다. 총 16명에서 19례의 원격 전이를 보였는데 폐에 가장 많은 14례의 전이를 보였다.

9) 조직학적 등급에 따른 5년 무병 생존율(Disease-free survival rate)은 Grade I에서 57.1%, Grade II 20.0%, Grade III 25.0%이었다.

10) 치료 양상에 따른 5년 생존율은 수술만 시행한 경우 66.7%, 수술 및 술후 방사선 요법을 병합한 경우 70.7%이었던 반면, 비근치적 요법만 시행한 경우는 33.3%이었다.

— 12 —

### 이하선종양의 진단법의 유용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최 건 · 윤종태 · 장일환

이하선 종양은 피부로 덮여 있어 종양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고 술전 조직생검이 용이하지 않아 병리조직학적 진단이 어려워 진단적 접근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이하선 종물에서 시행한 여러가지 진단적 방법과 수술후 적출한 종물의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비교하여 진단적 방법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은 최근 5년간 고대부속 구로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확진된 43례의 이하선 종물로 이들을 병리조직학적 진단에 의거하여 양성 종양(28례), 악성 종양(6례), 선천성 종양(6례), 염증성 종물(3례)로 분류하였고, 이 연구가 계획되었던 3년전 부터 병록에 기록한 병력과 이학적 검사에 의한 의진(38례) 및 이들에게서 시행한 타액선조영술(14례), 초음파검사(13례), 타액선주사(8례), 컴퓨터